



부록

무형유산 보호 국제회의 개회사
토론 요약문
참가자 프로필



무형유산 보호 국제회의 개회사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산과 들에 형형색색 단풍이 물들고,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 청명한 가을 날에, 조상들이 물려준 문화유산의 창조적 가치와 생산적인 활용을 숙고해보는 2012년 국제회의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가 개최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의를 위해 먼 길을 찾아주신 웨리프 카즈나다 프랑스 세계문화의 집 대표님을 비롯한 국내외의 석학, 전문가 여러분들과, 바쁘신 중에도 전국 각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이 참석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체결된 지 10년이 채 안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이 협약은 새로운 복음(gospel)처럼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무형문화유산과 전통적 가치에 대한 존중심과 애착을 고조시켰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무형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있으며, 목록(Inventory)을 작성하고, 실연자나 전수자들을 찾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의 무형유산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 제도가 실시된 지 4~5년 밖에 안되었지만, 벌써 140여개 국가들이 협약에 가입하고 260여 가지 종목들이 지정등재되었으며, 무형유산의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경쟁과 열기는 날로 치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무형유산의 개념은 생소하며, 무형유산의 범위나 종류(category), 국가목록의 등재기준(criteria)은 나라마다 달라서,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을 실천(implement)하는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이 다양하고 풍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 협약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작년에 설립된 저희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서는, 그동안 여러 나라와 소지역들을 다니며 정보화와 연대화(networking)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해 오면서, 아직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문제의식이 미흡하며, 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개선과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먼저 우리들 자신부터 아태지역 여러 나라의 값진 무형유산에 대하여 지식과 이해를 높여야겠다는 생각과, 무형유산이 인간의 삶과 사회발전에 어떤 기능과 공헌을 하는지 보다 심도 있게 인식해야겠다는 관심에서, 이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실천 활동을 해 오신 전문가들을 모시고 오늘과 같은 국제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하는 문제는 “무형유산의 창조적 가치가 어디에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도움과 영향을 주는가”라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이며, 무형유산을 보호하며 진흥시켜야 할 이유를 찾고자하는 물음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많은 경험과 연구를 쌓아오시고, 유네스코 협약을 만들고 실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고명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통해 오늘 매우 의미 있는 토론과 깨달음이 있으리라 확신하며, 인류의 삶과 사회발전에 유익한 무형유산의 보호와 진흥을 위해, 좋은 의견과 방안들이 많이 개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되고 토론되는 내용들은 기록, 정리되어 국내 뿐 아니라, 아태지역 여러 나라와 유네스코 본부, 여러 국제기관과 NGO들에 보내져 활용될 것으로 무형유산 협약의 국제적 실천에도 의미 있는 공헌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회의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후원과 협력을 해주신 문화재청과 당진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국제회의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